

1.

[정답] ④

[해설]

비재화가 들어가 있어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접근하면 된다. b 는 단순히 말해서 h 를 싫어하는 정도이다. 왜냐면 b 가 증가할수록 동일한 크기의 h 증가가 유발하는 효용 감소가 크기 때문이다. 그런데 b 가 클수록 h 를 늘릴까?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.

2.

[정답] ②

[해설]

제일 단순한 쿠르노 경쟁의 경우 생산량이 완전경쟁시장의 $n/(n+1)$ 배이다(n 은 기업 개수). 지금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$P=MC$ 가 되는 $Q=6$ 에서 생산한다. 따라서 쿠르노 경쟁에서는 4개를 생산한다. 더해서 4가 되는 선택지는 ②뿐이다.

3.

[정답] ④

[해설]

지급준비율의 역수인 통화승수를 현금에 곱한다.

4.

[정답] ③

[해설]

하나하나 효용 계산해서 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. 크기 비교만 하도록 한다. 지금 효용함수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위험 기피자이다. 그러면 공정한 보험의 경우에는 손실 전액을 보상하는 쪽을 선호한다. 공정보험 판단 기준은 보험료/보험금이 사고 확률과 같은지이다. A, C, D의 경우 공정보험이고, B는 불공정보험이다. 따라서 일단 B를 제일 싫어한다. 그리고 같은 공정보험일수록 위험을 최대한 없애고 싶어하므로 보상이 큰 순서대로 선호하게 된다(A, C, D).

5.

[정답] ①

[해설]

사실 행태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서 선택지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. 풀 때는 나머지 ②③④가 너무 맞아서 이걸 소거하고 골랐다. 개인적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는 부분이 틀린 것 같기는 하다. 결론이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 학문은 실용성이 없기 때문이다.

6.

[정답] ①

[해설]

여가가 정상재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반대다.

7.

[정답] ③

[해설]

지출비중을 가중치로 한 소득탄력성의 평균은 1이다. 그니까 한 쪽이 1보다 크면 나머지는 1보다 무조건 작아야 한다. 그렇다고 0보다 작아서 열등재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8.

[정답] ①

[해설]

이자율 상승 시 대체효과 : 현재소비 감소, 미래소비 증가

소득효과 : 저축자 - 현재소비 증가, 미래소비 증가

차입자 - 현재소비 감소, 미래소비 감소

그러니까 저축자는 현재소비 불확실, 저축 불확실, 미래소비 증가

차입자는 현재소비 감소, 저축 증가(차입 감소), 미래소비 불확실

9.

[정답] ④

[해설]

동일한 비율로 세금이 붙으니 상대가격은 불변이므로 기울기는 그대로이다. 다만 전보다 소비 가능한 재화가 감소하니 예산선이 안쪽으로 들어온다.

10.

[정답] ④

[해설]

반드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. 반대로 규모의 경제가 크게 나타나면 자연독점이 나타날 수는 있을 듯.

11.

[정답] ③

[해설]

동태적 비일관성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준칙에 따른 정책이다.

12.

[정답] ③

[해설]

$K=1$ 이므로 $Y=L$, $TC=L+1=Y+1$

단기평균비용은 $1+1/Y$ 이므로 상수가 아니다.

13.

[정답] ①

[해설]

Q식에 $K=10$ 대입한다. $TC=L+10=(1/10)Q^2+10$

조업중단점은 SAVC 최저점이므로 $SAVC=(1/10)Q$ 인 것을 고려할 때 조업중단가격은 0이다.

14.

[정답] ④

[해설]

선형 효용함수에서 수요량 변화가 있으려면 상대가격과 한계대체율 대소관계가 달라져야 한다. 지금 한계대체율은 $1/3$ 이므로 X재 가격이 1에서 2로 바뀔 때 위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는 ④뿐이다.

15.

[정답] ③

[해설]

인구론도 잘 모르는데 나와서 당황했다. 그런데 잘 보니 나머지는 상식 수준에서 알던 인구론 내용과 얼추 맞는 것 같아서 ③으로 골랐다. 나중에 검색해보니 토지를 늘린 것이 아니고 비료 등 기술 발달때문이라는 것 같다.

16.

[정답] ④

[해설]

- ① 낮은 가격, 낮은 가격이다.
- ② 파레토효율적인 것은 높은 가격, 높은 가격이다.
- ③ 이 게임에서 균형은 우월전략균형이다.

17.

[정답] ②

[해설]

생략

18.

[정답] ④

[해설]

확장 재정하면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 감소는 맞는데 환율이 하락해서 순수출이 감소한다.

19.

[정답] ①

[해설]

화폐수량설 : 통화량 증가율+유통속도 증가율=물가상승률+GDP증가율

20.

[정답] ①

[해설]

국채 발행은 국채 공급을 늘려서 국채 가격을 낮춘다. 이는 이자율을 높여서 투자를 줄인다. 전형적인 구축 효과.

21.

[정답] ③

[해설]

솔로우 모형 주장이다. 그리고 이런 주장이 나오는 근거는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이다. 저소득 국가의 경우 아직 자본이 적어서 자본의 한계생산이 높고 따라서 성장률도 더 높다.

22.

[정답] ②

[해설]

① 비교우위는 한 개만 된다.

③ 자원 부존이 문제가 아니고 생산기술의 문제이다.

④ 생산은 생산가능곡선에서 해야 하지만 소비는 그걸 벗어나서 할 수 있다.

23.

[정답] ②

[해설]

명목GDP : 200, 600

실질GDP : 200, 400

GDP디플레이터 : 100, 150

실질GDP성장률이 명목GDP성장률보다 낮다.

사실 실질GDP성장률이 더 높은 경우는 잘 없다. 이 말은 물가가 떨어졌어야 성립하는 내용이다.

24.

[정답] ①

[해설]

A국에서의 X재 상대가격 : $L/2L=0.5$

B국에서의 X재 상대가격 : $6L/3L=2$

이 사이에 있어야 교역이 된다.

25.

[정답] ②

[해설]

현금보유비율이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건지 살짝 헷갈렸다. 두 가지 승수 다 구해봄.

결과적으로 현금-통화비율인 것 같다. 그렇게 되면 통화승수는 다음과 같다.

$1/[\text{현금보유비율} + \text{지급준비율} \cdot (1 - \text{현금보유비율})]$

통화승수는 그냥 외우고 있는 것이 편하다. 유도해서 쓰니 헷갈리고 오래 걸린다.